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
"無始無終, 오로지
오늘만 있을 뿐"
8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8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07호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고려 불교 금속공예 정수 조선 서원터서 대거 발굴

문화유산硏, 도봉서원 발굴
'도봉사' 명문 유물 77점 발견
고려 도봉사와 관계 밀접 추정
금강령·금강저 예술성 우수
"국보 지정도 검토할만 하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교서원 자리에서 고려 명찰인 도봉사의 불교문화재가 대거 출토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과 발굴조사단인 서울문화유산연구원(원장 김일규)은 8월 2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12년 5~9월 진행한 도봉서원터 발굴조사 결과물인 불교용구 일체를 공개했다.

도봉서원터는 1481년까지는 조선 초기 사찰인 영국사가 있었으며 1573년 영국사 터의 기단 등을 활용해 도봉서원이 창건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국사와 도봉서원 기단부에서 '도봉사'(道峯寺)가 새겨진 청동제기와 고려시대 불교유물 77점이 발견돼 고려시대 도봉사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조사에 따라서는 이 곳이 원래 고려 초기 도봉사의 원래 자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봉사는 고려 4대 광종 때 국사 혜거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거란 침입 당시 8대 현종이 거처를 옮겨 국사를 돌보기도 한 대찰이다. 사찰과 함께 역원 기능도 함께 가져 도봉원(高達院)으로도 불렸으며 여기서 현재 도봉산의 지명도 유래했다. 1961년 벽암 스님에 의해 복원된 도봉사는 이번 발굴조사가 진행된 도봉서원 터와 계곡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다.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금강령(좌측)과 금강저, 도봉서원터에서 매납된 '도봉사' 명문 청동솥 안에서 발견됐다.

영국사는 발굴조사에서 '대시주 효령대군' 명문기와 발견돼 조선 세종 대 창건된 사찰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성종 때인 1481년까지 존속된 사찰임을 나타내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영국사에서 수륙재와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수재가 봉행된 기록이 있다.

발굴과정에서 발견된 불교문화재는 총 77점으로 이를 담은 청동솥에는 '도봉사'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출토 유물은 금동제 금강저(金剛杵)와 금강령(金剛鈴)을 비롯해 △청동제 뚜껑항아리(有蓋壺)와 뚜껑합(有蓋盒) △현향로(懸香爐)와 부형대향로(釜形大香爐) 등 청동제 등이다.

현덕만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조사팀장은 "'도봉사' 청동제기 등은 고려 전기 것으로 확인 됐다"며 "영국사 조성 당시 도봉사 제기들을 이용하고 땅에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밀교의식에 널리 쓰이던 금강령과 금강저는 기존에 볼 수 없는 독특함과 예술적 우수함을 지니고 있다. 금강령과 금강저는 12세기 중반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제작 기법이 우수하고 보존상태가 뛰어나 국보 지정의 가능성이 높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해 "국보 지정도 검토할 만 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금속공예 전공인 최응천 동국대 교수는 "금속공예품의 경우 대부분 실제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이번 출토유물은 큰 솥에 작은 법구류부터 차곡차곡 챙겨 넣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절이 폐사가 되거나 창건 당시 의식 일환으로 매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미뤄, 도봉사지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많은 고대 불교 법구가 출토된 사례는 1993년 청주 사뇌사(思惱寺) 지 발굴에서 400여 점이 출토된 것을 비롯해 창녕 말흘리 유적과 군위 인각사지 발굴 성과가 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한국 종교지도자들은 8월 18일 서울 명동 주교좌성당 꼬스트홀 1층에서 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 제공=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

"우리는 형제, 함께 걸어갑시다"

자승 스님 등 종교지도자, 18일 교황과 만남

지난 8월 14일 방한해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 후 출국한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과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교지도자 12명은 8월 18일 오전 9시 서울 명동 주교좌성당 꼬스트홀 1층에서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교황은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 위원장인 김희중 대주교의 안내에 따라 자승 스님 등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합장으로 인사하며 짧은 환영의 말을 건넸고, 교황도 두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후 교황은 기념촬영을 하며 즉석인사를 하기도 했다. 교황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종교 지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는 형제들이다. 형제들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국 종교지도자와 만남을 가진 교황은 명동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방한 마지막 일정인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했다. 예배당에 들어 온 교황은 맨 앞에 앉아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허리를 굽히고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누며 대화했다. 할머니 중 김복동(89) 씨가 교황에게 노랑나비 뱃지를 건넸고, 교황은 그 자리에서 이 뱃지를 제의에 달았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8월 18일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교황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프란시스코 교황 방한은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지금 여기서 희망을 찾아가도록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세월호 문제에 대해 자비로운 눈과 손길로 어루만져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관련 기사 31면〉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본격화

조계종, 27일 추진위 발족… 서명운동 등 전개
민초 위해 분연히 일어서
韓 전란사 내 업적 '뚜렷'

서산, 영규, 사명 대사 등 한국 호국불교 정신을 기리는 '호국 의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조계종은 오는 8월 27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 행사 후에는 참석 내외빈의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실제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의 위기 때 불교는 의승군으로 활동하는 등 적지 않는 도움을 줬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 직후 선조는 서산 대사에게 '팔도십육종도총섭(八道十六宗都摠攝)' 직을 수여하고 나라와 백성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산대사께서는 계를 파하는(越戒)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직 국가와 백성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명 대사, 처영 대사, 영규 대사 등 제자들과 함께 5천여 명의 의승군을 소집했다.

서산 대사는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평양성 전투에 참여해 왜적을 퇴각시켰고, 처영 대사는 권율과 함께 행주산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사명대사는 노원평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한성 수복에 큰 역할을 했으며, 800여 명의 전라좌수영 의승은 수군이 승리를 거두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임진왜란 이후 조정은 스님들을 다시 평가하고 나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등 산성의 축성과 수비를 승군에게 맡겼다. 일제강점기에도 스님들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등에 참여했고, 국내 독립운동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조정은 승장과 승군의 공훈을 인정해 대흥사, 표충사 등에 사액을 내리고 국가제향을 지내도록 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가제향의 맥은 끊어지게 됐다.

한국불교의 호국애민 정신이 퇴색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음을 직시한 조계종은 전문 학자들의 연구와 세미나를 열고 '호국 의승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주장해왔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호국불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집, 편람들을 제작했다.

지난 6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은 '호국 의승의 날'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고 중앙종회는 '호국 의승의 날' 제정 사업을 종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임진왜란 등 전란사에서 의승군의 족적은 뚜렷함에도 이를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의승군을 제대로 조명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발족식 차주 상보〉

현대불교 지사 모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기자 및 지사장을 모십니다

모집 지역 및 부문
- 부 산: 부산지역 일원에서 활동할 주재기자 및 지사장
- 충 청: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활동할 지사장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 확장 및 광고 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 활동 지원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다만, 주재기자는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 제외
- 제출기한 :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제 출 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 관리부 서춘건 부장
전 화 : 02)2004-8204 팩 스 : 02)737-0698
이메일 : cgseo@hyunbul.com

1007호 INDEX

연중기획 5
탐진치 줄이기-행복으로 가는 길

종합 2·3
스님들, 인성교육 전문가 '발돋움'
종교지도자 세월호 단식장 위로 방문
불교평론 창간 15주년 심포지엄 연다

화엄만다라 16·17
국제구호활동가 김재령 씨

문화 20
불교TV 4인4색 즉문즉설 '눈길'

불교로 읽는 고전 24
A.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디자인 등록원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청동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